



3면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 본격 가동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음 3월 11일)

제371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윤석열 파면, 새로운 전북의 시작”

민주 전북 국회의원들, “민주주의 회복에 동참해 주신 도민께 감사… 새 미래 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새로운 대한민국과 전북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술지 전북도의회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원택 전북도당 위원장이 도내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전북도민의 헌신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북도민들이 광화문 촛불집회, 천막 농성, 피켓 시위,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회복에 동참해 준 점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로 인한 122일간의 국가적 혼란을 되짚으며, 국회 내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과 탄핵소추안 통과, 광화문 촛불 농성 및 도보 행진 등 의정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3년은 전북에 특히 가혹했다”며, 2023년 세계잡버리 파행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파면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전북의 국제적 신뢰와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헌정질서 복원과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전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책임 있게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과 ‘새만금특별법’ 처

럼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각 의원들이 전북 현안과 탄핵 과정 중 있었던 에피소드, 대광법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들은 “도민 여러분께서 전북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북도민께

서 압도적 지지를 통해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꼭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원택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운·신영대·이춘석·한병도·박희승·안호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운덕 사무총장과 정동영·윤준병 의원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이만호 기자

‘2025년 교육가족 공모전’

전북자치도교육청, ‘10대 핵심과제’ 주제로

사진·숏폼·만화 분야… 내달 7~19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년 교육가족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분야는 동시(초등학교)와 사진, 숏폼 영상, 만화(웹툰) 등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분야별로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아침 10분 독서, 내만의 학습 비법 △SI와 함께하는 우리 교실, 재미있는 수업 이야기 △학교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생활, 에너지 절약 노력 등과 관련된 사례를 담아내면 된다.

신청은 도내 초·중·고교 재학생과 만 18세 미만 청소년, 교직원(교육공무직 포함)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5월 7~19일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be.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사의 경우 초등학교생이 대상이다. 학생을 대신해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숏폼 영상은 개인 및 단체(5인 이하)가 가능하다.

사진은 재학생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과 숏폼 영상 분야에는 교직원들

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만화(웹툰)는 초·중·고교 학생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분야별 복수 응모가 가능하다.

전년도 대상 수상자는 이번 심사에서 제외되며, 작품 설명(띄어쓰기 빠고 30자 이상)을 제출해야 하고 중복 수상자의 경우 상금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분야별로 대상 4편, 최우수상 10편, 우수상 19편, 장려상 39편 등 총 7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6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전북교육청 누리집과 블로그 등에 게재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www.jbe.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모전 담당자(063-239-3153)에게 문의하면 된다.

오재승 대변인은 “공모전을 통해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참신한 콘텐츠가 전북교육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 해외우수인재 유치 ‘청신호’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2년간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670명 유치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해외인재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자치도는 7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광역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 요건을 설계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사업이다. 16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가한 결과, 전북을 포함한 1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전북은 특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대학을 살릴 방안으로 유학생 비자를 선택해 비자 요건을 설계했다.

전북의 핵심전략인 생명산업 육성과 전환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생명서비스, 청정 에너지 등 관련 전공으로 유학하려는 해외 인재들에게 비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우선, 해외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전북으로 유학할 수 있도록 재정능력 심사기준을 1,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또한 10~25시간까지 가능했던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 시간을 30시간으로

확대했다. 전북에 유학은 외국인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들이 학기중 인턴활동이 가능해져 졸업 후 전북 취업과 정착이 용이해진다.

전북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년간 670명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학령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후 지역 대학들과 세부전공 및 운영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사업 지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유학생 유치를 넘어 지역산업 필요인재 양성과 도내 인구증가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유학생 지원 정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광역형비자 공모사업 선정은 전북형 출입국인민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대학의 해외유학생 유치와 농생명바이오 산업 등 전북 특화산업 발전이 상호연계되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CES 2026’ 참가기업 25일까지 모집

도, 도내 중소기업·벤처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일환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6 참가기업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ICT 융합 분야의 완제품 또는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벤처기업으로, 2026년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기간 중 2인 이상이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특히 단독관 참가기업은 기존 전북 공동관에 참가한 이력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북 공동관 6개사 내외, 단독관 1개사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기업별 전시역량과 국제무대 경험 등을 고려해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관 참가기업에는 부스 임차 및 장치비, 항공·숙박 실비(최대 400만원), 통역비, 물류비 등이 지원되며, 단독관 참가기업에는 부스 및 장치비의 90%(10% 자부담)와 항공·숙박비, 통역비 등이 동일하게 지원된다.

또한, 전시 주최사인 CTA가 수여하는 CES 혁신상 출품에 위한 영문 컨설팅과 신청비를 지원한다.

/이만호 기자

